

UN 공해 생물다양성 협약 채택, 국내 영향 및 과제

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경제연구센터

□ 공해 및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(BBNJ : Biodiversity Beyond National Jurisdiction)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협정안이 3월 4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채택됨.

- (배경)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관리 미비에 따른 해양생물다양성 훼손에 대한 문제 의식을 공유하고, 해양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가능이용을 위한 국제규범 마련
- (경과) '04년 실무작업반 설치, '15년 BBNJ 준비위원회 설립, '18~'23 정부간회의 개최
- (잠정 협정안 주요내용)
 - ① 해양유전자원의 이용과 개도국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
 - ② 공해 등 생물다양성 확보와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한 해양보호구역 등 설치
 - ③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 수행될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
 - ④ 선진국의 개도국 역량강화와 해양기술이전 지원
- (향후절차) UN의 6개 공식언어로 번역된 후 정부간회의의 속개회의에서 공식 채택될 예정이며, 우리정부는 서명 및 비준 절차를 추진하고 필요한 국내입법 정비 계획

□ 이번 BBNJ 잠정 협정 타결은 2004년 실무작업반 설치를 시작으로 약 20년 동안 이어온 논의의 결과로,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 이익공유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 간의 의견 차이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으나, 극적으로 협정안 도출에 성공함.

- 개도국들은 선진국 중심의 해양유전자원 상업화에 따른 이익공유를 주장하면서 공해 질서에 대한 국제적 규제를 보다 강화하고자 했음.
- 반면 선진국들은 가급적 기존 UN 해양법협약의 틀을 유지하면서 상대적으로 이행이 용이한 내용을 담고자 했음.

< 해양유전자원의 상업화에 대한 이익공유 합의 내용 >

-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공유 체제 수립
 - 선진국이 해양유전자원과 이로부터 발생하는 생명공학정보를 상업적으로 활용하여 이익 발생시 이를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 등에 지원
- 개도국의 해양기술 개발, 지속가능한 해양개발과 공해상의 해양환경 보호 등을 위해 선진국 중심으로 특별 기금(Special Fund)을 조성

□ **UN의 BBNJ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 산업계 관심사항은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절차와 이익공유가 세부적으로 어떻게 정해질 것인지에 대한 것임.**

- 지금까지 공해 자유의 원칙에 따라 해양유전자원은 자유롭게 접근이 가능했으나 이를 규제하고, 이 지역에서 발굴된 유전자원을 연구 개발해 이익이 나는 경우 이익 공유를 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음.
- 공해 및 심해저 등 특정환경에서 유래하는 해양 유전자원이 특별한 기능을 갖고 의약품, 건강기능식품, 화장품 등에 활용될 가치가 클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 탁솔(Taxol)의 경우 서양 주목나무 껍질에서 얻은 항암제로, 해양유전자원을 기원으로 하는 다양한 식물과 미생물에서 파생된 항암 효과가 있는 의약품들이 개발되고 있음.
- 산업계는 해양 유전자원에 접근해서 연구개발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상업적 이익 창출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이익공유는 해양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은 물론 연구개발과 상업화를 저해할 것이라 우려하고 있음.
- BBNJ 협정문에 따라 향후 15명의 지명된 전문가로 구성될 '**이익공유위원회**'에서 해양유전자원의 공정하고 공평한 금전적 이익공유를 논의해 결정할 예정임.
- 또한, 해양 생물에서 수집한 유전자 데이터 및 생물학적 샘플에 '**BBNJ 표준화된 배치 식별자(BBNJ standardized batch identifier)**'를 부여하고, 수집 후 1년 이내에 해당 데이터가 출판되는 내용을 **정보센터(Clearing House)에 통보**하도록 하고 있음. 이러한 식별자는 원래 연구에서 나온 모든 특허 또는 판매 제품에 **첨부**되게 됨.

□ **이번 BBNJ 협약 협상이 타결됨에 따라, UN 차원에서 그리고 국내 차원의 법제도적 세부 이행방안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.**

- 해양유전자원을 이용해 항암제 등 제품들이 개발되고 생산되고 있으나 바다라는 특성상 수많은 해양 식물과 미생물 등에 대한 접근과 연구가 많이 진행되지 못했음. 지금까지 심해의 5% 미만이 탐사되고 심해저의 0.01% 미만이 자세히 샘플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음. 그만큼 해양유전자원에 대한 산업적 이용 잠재성은 크다고 할 수 있음.
- BBNJ 협상이 타결되면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유전자원과 그 유전적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자와 기업들의 법률적 그리고 금전적 이익 공유 의무가 발생됨. 또한, 특별한 식별코드를 통해 해양유전자원과 유전적 정보를 이용한 특허출원과 제품의 상업화에 대한 모니터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됨.
- 앞으로 이러한 의무가 과연 국내 산업계 및 연구계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와 이용 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분석해야 할 것임. 또한, 우리 정부가 BBNJ의 이행을 위한 국내 법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국내 산업계와 연구계와 적극 소통하면서 합리적인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, BBNJ 이익공유위원회 등의 국제 협상에서도 우리의 입장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의견을 개진해야 할 것임.

- <참고> 1.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지속가능이용(BBNJ) 협정안 협상 타결,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, 2023.3.5
2. UN forges historic deal to protect ocean life: what researchers think, Nature, 2023.3.7.
3. Marine Natural Products: A Source of Novel Anticancer Drugs, MDPI, 2019.8.23
4. UN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 쟁점 및 과제, 한국바이오협회 이슈브리핑, 2022.8.31